

Md.c.3

조사연구 93-1

1993. 9.

# 장애가정 생활실태 및 배우자 의식조사

〈지체장애 남편을 둔 배우자 설문조사〉

장애가정 생활실태 및 배우자의식조사

1993년 9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부설 복지개발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의협회  
KOREA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부설) 복지개발연구원

94



조사연구 93-1

# 장애가정 생활실태및 배우자 의식조사

〈지체장애 남편을 둔 배우자 설문조사〉

연구원 : 백 중 환



사단  
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OREA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부설) 복지개발연구원



# 발 간 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재활자립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냉대와 차별, 그리고 장애인복지정책의 미비로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한꺼번에 겪어온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가구의 생활실태는 일반인들의 사회·문화적 판단과 상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체감의식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1960년대 보리고개를 연상할만큼의 어려움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장애인복지대책과 문민정부의 생활정치 실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 조사연구는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소득 7천불시대에 일반인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혜택을 구가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장애인가구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체장애인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의 장애인복지제도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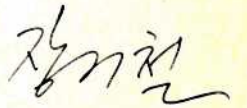
앞으로 계속 재가장애인과 고령장애인, 결혼이후 각종사고로 장애인이 된 중도장애인들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이들이 재활자립 하는데 끊임 없는 연구와 대응책을 보완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하는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그동안 정부의 시설위주의 정책적 방향을 장애인가구의 자립중심으로 전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끝으로 이 조사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원으로 수고해 주신 본 협회 지회장여러분과 설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배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1993. 9.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





## 목 차

### 제1장 서론

1. 조사의 목적 ..... 15
2. 주요 조사의 내용 ..... 15
3. 조사의 설계 ..... 16
4. 표집절차 ..... 16
5. 표집회수 결과 ..... 17
6. 자료처리 ..... 18
-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 19

### 제2장 조사 결과의 요약

1. 배우자의 신상 ..... 20
2. 주거 형태 ..... 21
3. 가구의 주 소득원 ..... 21
4. 배우자의 생활의 만족도 ..... 22
5. 남편의 신상 ..... 23
6.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 26
7. 배우자의 복지제도 욕구 실태 ..... 30

### 제3장 조사 결과 및 분석

1. 배우자의 장애유무 ..... 32
2. 결혼 방법 ..... 35
3. 주택의 소유형태 ..... 37
4. 주택입주 거부유무 ..... 40
5. 가정의 주 소득원 ..... 43



6. 결혼의 만족도 .....	46
7. 가정생활의 만족도 .....	48
8. 남편 직장의 만족도 .....	50
9. 경제사정의 만족도 .....	52
10. 남편 건강의 만족도 .....	55
11. 현재 가장 근심되는 일 .....	57
12. 남편의 장애 선천 또는 후천여부 .....	59
13.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 결혼후 유무 .....	62
14. 남편의 직업 .....	64
15.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 .....	67
16. 남편의 수입정도 .....	70
17. 남편이 일하는 곳 .....	72
18. 남편 직업에 대한 만족도 .....	75
19. 소득과 생활 .....	77
20. 장애인 복지의 관심정도 .....	80
21.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	82
22.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불편한 점 .....	84
23.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 .....	87
24. 장애인 사회·문화·환경 개선 욕구 .....	90
25.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느낌 .....	93
26. 자녀·친척의 장애인과 결혼 여부 .....	96
27. 장애아 출산 여부 .....	98
28. 장애인을 위한 정책 욕구 .....	101
29.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 .....	104
30. 직업훈련및 취업알선의 만족 .....	106
31.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	109
32. 장애인 관련제도의 시급한 과제 .....	112
33.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	115

#### 제4장 조사의 결과 및 정책제언

1. 평가 및 분석 .....	118
2. 정책의 제언 .....	119
가. 정책의 기본방향 .....	119
나. 정책 제언 내용 .....	120
(1) 장애인 가구 소득 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	120
(2) 생활 환경 개선 .....	123
(3) 취업보장 .....	124
(4) 장애발생 예방 .....	125
(5) 범 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	126
부록 .....	131
조사결과 집계표 .....	135
장애가정의 생활 실태및 배우자 의식조사표 .....	173



## 표 목 차

〈표 1- 1〉 지역별 할당표본 및 회수표본 .....	17
〈표 1- 2〉 표본의 특성 .....	18
〈표 2- 1〉 배우자의 장애여부 .....	20
〈표 2- 2〉 결혼 형태 .....	20
〈표 2- 3〉 가구의 주 소득원 .....	22
〈표 2- 4〉 현재 가장 근심 되는일 .....	22
〈표 2- 5〉 남편의 장애 발생 결혼전·후 유무 .....	24
〈표 2- 6〉 남편의 직업 .....	24
〈표 2- 7〉 자녀·친척이 장애인과 결혼여부 .....	29
〈표 2- 8〉 장애인을 위한 정책육구 .....	29
〈표 3- 1〉 배우자의 장애유무 .....	33
〈표 3- 2〉 배우자의 연령별 장애유무 .....	33
〈표 3- 3〉 결혼의 유형 .....	35
〈표 3- 4〉 장애인과 일반인의 결혼유형비교 .....	36
〈표 3- 5〉 주택의 소유형태 .....	38
〈표 3- 6〉 지역별 주택의 소유형태 .....	38
〈표 3- 7〉 주택 입주 거부 유무 .....	41
〈표 3- 8〉 지역별 주택 입주 거부 유무 .....	41
〈표 3- 9〉 가정의 주 소득원 .....	43
〈표 3-10〉 가정의 주 소득원 남편과 부인의 관계 .....	44
〈표 3-11〉 결혼의 만족도 .....	46
〈표 3-12〉 연령별 결혼의 만족도 .....	47
〈표 3-13〉 가정생활의 만족도 .....	49
〈표 3-14〉 학력별 가정생활의 만족도 .....	49
〈표 3-15〉 남편 직장의 만족도 .....	51
〈표 3-16〉 연령별 남편직장의 만족도 .....	51
〈표 3-17〉 경제사정의 만족도 .....	53

〈표 3-18〉 지역별 경제사정의 만족도 .....	53
〈표 3-19〉 남편 건강의 만족도 .....	55
〈표 3-20〉 연령별 남편건강의 만족도 .....	56
〈표 3-21〉 현재 가장 근심되는일 .....	58
〈표 3-22〉 연령별 가장 근심·걱정되는일 .....	58
〈표 3-23〉 남편의 장애 선천 또는 후천 여부 .....	60
〈표 3-24〉 연령별 남편장애 선천 또는 후천여부 .....	60
〈표 3-25〉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후 유무 .....	62
〈표 3-26〉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후 유무(연령별) .....	63
〈표 3-27〉 남편의 직업 .....	64
〈표 3-28〉 배우자 연령별 남편의 직업 .....	65
〈표 3-29〉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 .....	68
〈표 3-30〉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지역별) .....	68
〈표 3-31〉 남편의 수입 .....	70
〈표 3-32〉 학력별 남편의 수입정도 .....	70
〈표 3-33〉 남편이 일하는 곳 .....	73
〈표 3-34〉 남편이 일하는곳(지역별) .....	73
〈표 3-35〉 남편직업에 대한 만족도 .....	75
〈표 3-36〉 남편직업에 대한 만족도(학력별) .....	76
〈표 3-37〉 생활의 정도 .....	78
〈표 3-38〉 학력별 소득과 생활 .....	78
〈표 3-39〉 배우자의 장애인 복지의 관심 .....	80
〈표 3-40〉 배우자 연령별 장애인 복지 관심정도 .....	81
〈표 3-41〉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	82
〈표 3-42〉 지역별 배우자 장애인 인식 .....	83
〈표 3-43〉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불편한 점 .....	85
〈표 3-44〉 남편과 외출할 경우 애로사항(지역별) .....	85
〈표 3-45〉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 .....	88
〈표 3-46〉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연령별) .....	88



<표 3-47> 사회·문화·환경개선 욕구사항 .....	90
<표 3-48> 연령별 장애인 사회·문화·환경개선 욕구 .....	91
<표 3-49>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느낌.....	93
<표 3-50>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느낌(연령별).....	94
<표 3-51> 자녀가 장애인과 결혼한다면 승락 여부 .....	96
<표 3-52> 자녀가 장애인과 결혼한다면 승락 여부(연령별) .....	97
<표 3-53> 장애아 출산여부.....	99
<표 3-54> 장애아 출산여부(연령별) .....	99
<표 3-55> 장애인을 위한 정책 욕구 .....	102
<표 3-56> 지역별 장애인을 위한 정책 욕구.....	102
<표 3-57>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준 .....	104
<표 3-58>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준(지역별) .....	105
<표 3-59>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만족도 .....	107
<표 3-60>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만족도(연령별) .....	107
<표 3-61>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평가.....	109
<표 3-62>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평가(학력별) .....	110
<표 3-63> 장애인 제도의 시급한 과제 .....	112
<표 3-64> 장애인 제도의 시급한 과제(연령별) .....	113
<표 3-65>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	115
<표 3-66> 대도시 장애인 배우자가 진단한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116
<표 4-1> '93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구조.....	120

## 조사결과 집계표

<표 5-1> 배우자의 연령.....	135
<표 5-2> 배우자의 학력.....	136
<표 5-3> 배우자의 종교.....	137
<표 5-4> 배우자의 거주지역 .....	138
<표 5-5> 배우자의 장애유무 .....	139
<표 5-6> 결혼의 유형.....	140
<표 5-7> 주택의 소유형태 .....	141
<표 5-8> 주택입주 거부 유무 .....	142
<표 5-9> 가정의 주 소득원 .....	143
<표 5-10> 결혼의 만족도.....	144
<표 5-11> 가정 생활의 만족도 .....	145
<표 5-12> 남편직장의 만족도 .....	146
<표 5-13> 경제사정의 만족도 .....	147
<표 5-14> 남편 건강의 만족도 .....	148
<표 5-15> 현재 가장 근심·걱정되는 일 .....	149
<표 5-16> 남편의 장애 선천 또는 후천여부.....	150
<표 5-17>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후 .....	151
<표 5-18> 남편의 직업.....	152
<표 5-19>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 .....	153
<표 5-20> 남편의 수입.....	154
<표 5-21> 남편이 일하는 곳 .....	155
<표 5-22> 남편 직업에 대한 만족도 .....	156
<표 5-23> 소득과 생활.....	157
<표 5-24> 배우자의 장애인 복지의 관심 .....	158
<표 5-25>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	159
<표 5-26>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불편한 점 .....	160
<표 5-27>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 .....	161



〈표 5-28〉 사회·문화·환경개선 욕구사항 .....	162
〈표 5-29〉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느낌 .....	163
〈표 5-30〉 자녀가 장애인과 결혼한다면 승락여부 .....	164
〈표 5-31〉 장애아 출산여부 .....	165
〈표 5-32〉 장애인을 위한 정책 욕구 .....	166
〈표 5-33〉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수준 .....	167
〈표 5-34〉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만족도 .....	168
〈표 5-35〉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평가 .....	169
〈표 5-36〉 장애인 제도의 시급한 과제 .....	170
〈표 5-37〉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	171

## 제1장 조사의 개요

### 1. 조사의 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생활능력이 없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대상은 장애인이며 또한 장애인도 반드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극히 미비하고 제도적인 뒷바침이 없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가장인 가구는 사회적인 편견과 신체적 장애로 인해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에따라 장애인 가구의 자립을 위해서는 전국장애인가구의 정확한 생활실태와 장애인가구의 욕구를 파악, 장애인복지정책수립과 장애인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주요조사의 내용

이러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하여 장애인과 결혼, 눈물겨운 헌신과 봉사,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배우자를 통해 장애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장애 남편의 욕구 및 배우자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배우자가 평가하는 장애인복지 실태와 복지정책 수립의 우선 과제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에 중점을 두었다.

가. 장애인 가구의 생활실태

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다. 가장의 역할과 생활
- 라.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 마. 장애인 복지정책 욕구
- 바. 법률 및 제도개선 욕구

### 3. 조사의 설계

- 가. 조사지역 : 전국 전역(제주도 제외)
- 나.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과 결혼한 배우자
- 다. 표집방법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회원중 결혼한 가구 명부를 이용한 다  
단층화 무작위 표본추출
- 라. 표본크기 : 지체 장애인 배우자 3000명
- 마. 조사기간 : 1993. 3. 10 ~ 4. 10.
- 바. 조사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군·구 지회장

### 4. 표집 절차

- 가. 표본집단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257,317명중 결혼한 장애인가구 포함.
- 나. 표본의 크기는 표본집단의 1.16%인 3,000명으로 함.
- 다. 표본의 추출 방법은 전국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중 결혼한 가구 명  
부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  
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회원가구수에 비례할당함.

### 5. 표집회수결과

지역별 할당표본 및 회수표본

(단위 : 명)

<표1-1>

지역별	구분	표 본 수	회수표본수	회수율 (%)
서울		300	92	30.70
부산		150	64	42.7
대구		105	41	39.0
인천		75	28	37.3
광주		45	23	51.1
대전		45	18	40.0
강원		330	95	28.8
경기		300	82	27.3
충북		210	72	34.3
충남		240	78	32.5
전북		180	56	31.1
전남		330	88	26.7
경북		300	90	30.0
경남		390	109	27.9
계		3,000	936	31.2



6.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동국대학교 통계학과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SPSS로 이루어졌다.

〈표1-2〉 표본의 특성

구 분	사 례 수	%
전 체	858(명)	100
〈연 령〉		
25세 미만	35(명)	4.1
25~29세	63	7.3
30~34세	162	18.9
35~39세	187	21.8
40세 이상	399	46.5
무 응 답	12	1.4
〈학 력〉		
무 학	65(명)	7.6
국 졸	279	32.5
중 졸	254	29.6
고 졸	204	23.8
전문대졸	23	2.7
대졸이상	21	2.4
무 응 답	12	1.4
〈지 역〉		
농 어 촌	318(명)	37.1
중 소 도 시	301	35.1
대 도 시	209	24.4
기 타	15	1.7
무 응 답	15	1.7

별첨 :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1. 표본오차(Sampling Error) 공식은 다음과 같다.

표본추출 1,000사례로서 모집단을 추정할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본 오차(Sampling Error) 공식은 다음과 같다.

$$D = \pm 1.96 \sqrt{\frac{P(100-P)}{N}}$$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2.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95% Confidence level)

Observed Percentage	Sample Ssize						
	100	250	500	750	1000	1500	2000
	± %	± %	± %	± %	± %	± %	± %
50	9.8	6.2	4.4	3.6	3.1	2.5	2.2
40 or 60	9.6	6.1	4.2	3.5	3.0	2.5	2.1
30 or 70	9.0	5.7	4.0	3.3	2.7	2.3	2.0
20 or 80	7.8	5.0	3.5	2.9	2.5	2.0	1.8
10 or 90	5.9	3.7	2.6	2.2	1.9	1.5	1.3

이번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1,000이므로 95%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이내이다.



## 제2장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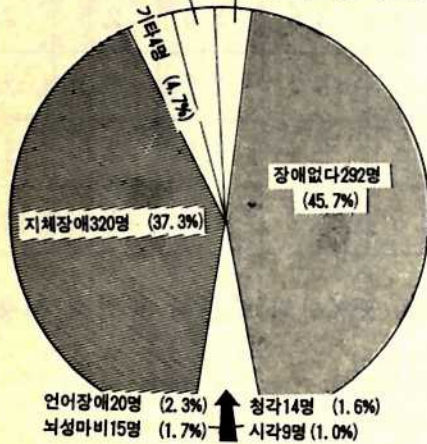
### 1. 배우자의 신상

우리나라 지체장애인 남편을 둔 배우자의 45.7%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장애유형의 지체장애배우자는 37.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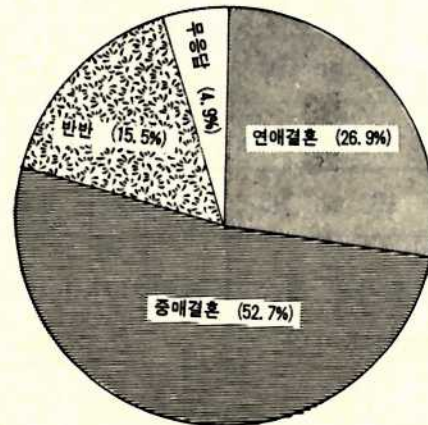
이에반해 언어장애, 정신지체, 청각, 시각, 뇌성마비 장애인 배우자는 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사이의 배우자와 30~34세 사이의 배우자중 각각 57.1%와 51.2%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세이상 배우자는 41.6%가 지체장애인이며 무학과 전문대 졸업자의 배우자가 각각 41.6%, 41.7%가 지체장애인으로 밝혀졌다.

〈표 2-1〉 ◇배우자의 장애 여부



〈표 2-2〉 ◇결혼 형태



또한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중에는 57.1%가 장애가 없었으며 전문대졸업자중에는 17.4%만이 같은 유형의 지체장애 인인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순으로 같은 지체장애인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유형은 중매결혼이 52.7%를 차지했으나 연애결혼과 중매와 연애 반반이 각각 26.9%, 15.5%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대졸인 경우에는 연애 결혼이 47.6%, 중매가 28.6%를 차지한 반면 국졸인 경우는 중매가 62.4% 연애가 16.5%로 나타나 서로 상반되었다.

### 2. 주거형태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주거형태는 자택이 38.1%, 월세 24.5%, 전세 23.5%, 무허가 7.0%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자택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56.3%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소도시에서는 48.2%, 대도시에서는 26.8%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부부중 37.8%가 월세로 나타나 대도시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학력별 분포로 살펴보면 대학졸업배우자중 42.9%가 주택을 보유,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업자가 34.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배우자중 무허가에 살고 있는 가구가 10.8%로 나타나 대학졸업자나 전문대졸업자의 각각 1가구씩인 것과는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이사를 하기위해 전·월세등을 구입하려 할때 집주인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꺼려하거나 거부당한 사실"에 대해 있었다가 35.4%, 없었다가 48.0%, 무응답이 16.6%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에서 거부한 사례가 38.2%로 가장 높았으며 대도시나 농어촌에서는 엇비슷하게 나타났고 대도시에서는 59.8%가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 3. 가구의 주 소득원

설문에 응답한 가구의 주 소득원은 남편이 38.8%를 차지한 반면 부인도 30.7%가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장애남편들이 부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가 국졸인 경우에는 부인이 36.6%로 남편의 32.6%보다 높게 나타나 부인의존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중에는 형제, 친지의 보조로 가정 살림살이를 하는 가구도 14.3%나 되었다.

또 중졸인 경우에는 남편(37.4%)과 부인(33.1%)이 대등한 상태였고 고졸이상 고학력일수록 부인의 의존도가 낮아 대졸의 경우 19.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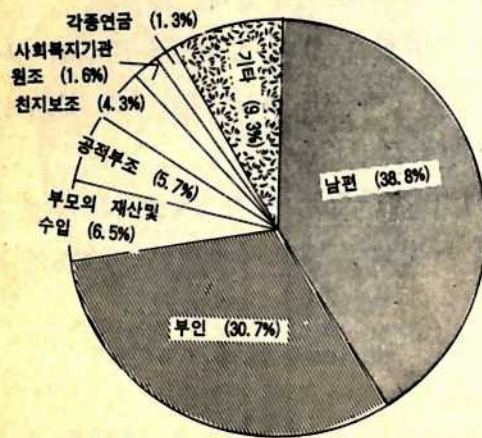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이상 30세미만은 남편이 52.4%로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부인은 17.5%로 가장 낮았으며 40세이상은 남편(36.8%)과 부인(35.6%)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 4. 배우자의 생활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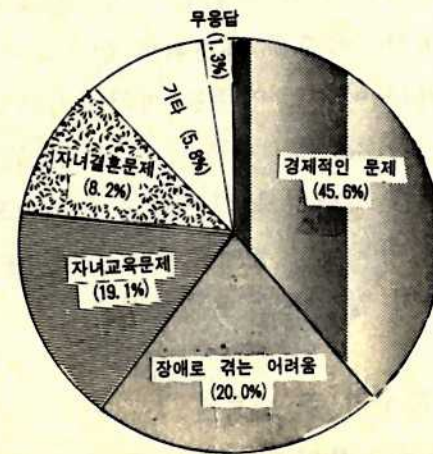
부인에게 결혼, 가정생활, 경제사정, 남편의 직장, 및 건강등의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결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으며 가정생활에도 그다지 불만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남편의 건강과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이 심해 장애로 인해 남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표 2-3> ◇가구의 주 소득원



<표 2-4> ◇현재 가장 근심되는 일



이에반해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대체로 평균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줘 남편을 존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학력이 낮은 무학의 경우 결혼, 가정생활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할 정도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무학인 부인의 신상을 살펴보면 40세이상이 70.8%를 차지하고 농어촌에서 49.2%가 살고 있으며 지체장애를 가진 부인이 41.5%를 차지, 다른 어떤 형태로 비교하든 열악한 상태인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부인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재 가장 근심이 되는 일'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45.6%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로 겪는 어려움(20.0%), 자녀교육문제(19.1%), 자녀결혼문제(8.2%) 순으로 응답, 우리나라 장애인 가정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열악한 환경인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 5. 남편의 신상

남편의 장애발생은 선천적(21.3%)인 것보다 후천적(70.6%)인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5~30세 미만과 대졸 부인들의 남편은 선천장애가 각각 12.7%, 4.8%로 낮게 나타난 반면 25세이하의 남편과 무학의 남편들은 각각 45.7%와 40.0%가 선천장애라고 응답,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편의 장애발생이 결혼전과 결혼후의 발생여부를 묻는 질문에 결혼전이 55.4%, 결혼후가 35.2%로 나타나 후천적장애발생과 함께 결혼후장애발생률이 높아,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발생률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와같은 장애발생은 연령이나 학력, 지역에 관계없이 10명중 3명이 결혼후에 장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예방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남편직업의 직종은 무직이 30.2%로 가장 높았으며 소규모 자영업이 17.9%, 단순 노무직이 13.9%, 기능·기술직이 11.2%를 차지한 반면 회사원, 사무전문요원은 각각 4.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전문대및 대학을 졸업한 부인의 남편들은 전문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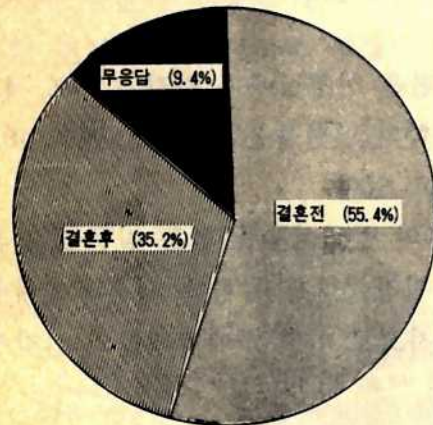
이나 회사원이 40%이상을 차지했으며 고졸부인의 남편은 소규모 자영업이 26.5%나 차지했고 국졸부인의 남편의 경우는 무직이 40.1%씩이나 되었고 무학 부인의 남편들은 사무전문요원이나 회사원들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체장애인 가장들이 30%가 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부인들이 직장이나 파출부등으로 부인이 가장의 책임을 감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인들은 남편이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31.5%가 장애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한다고 응답한 부인들도 12.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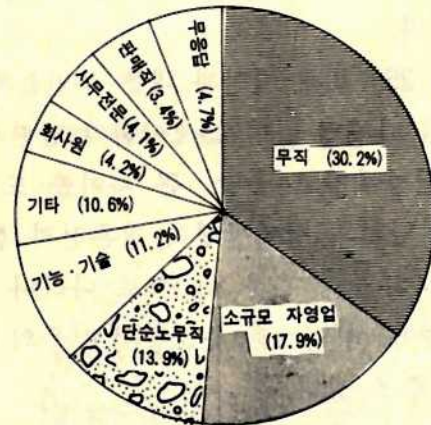
이에따라 지체장애인들의 직종을 개발, 일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후 유무



특히 남편들의 한달 수입이 30만원미만이 34.1%를 차지하고 50만원미만인 남편이 전체의 52.9%를 차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구조를 쉽게 알수 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은 주로 비장애인과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곳이나"는 질문에 "일반인과 함께 일한다"고 대답한 부인들은 32.4%를 차지했고 "주로 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라고 응답한 부인도 11.2%를 차지했다.

<표 2-6> ◇남편의 직업



반면 21.1%가 "혼자 일한다"고 응답하여 소규모자영업이나 판매직에 종사한 남편들은 대부분 혼자 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어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의 남편의 경우가 혼자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및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의 남편은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비율이 높아 고학력의 배우자를 둔 남편의 학력도 고학력일것으로 추정된다.

'남편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30.5%가 불만이라고 응답했으며 11.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학력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무학인 경우 남편의 직업에 대해 4.6%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4.6%가 불만으로 표현했다.

반면 배우자가 대졸 출신인 경우 남편직업에 28.6%가 만족하고 42.9%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은 14.3%로 나타나 고학력인 경우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25세미만의 배우자들은 22.9%가 불만이라고 응답했으며 만족 11.4%, 그저그렇다 34.3%로 응답, 절반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느냐"란 질문에 배우자들의 38.8%가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조금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라고 대답한 배우자들은 27.6%, "보통이다" 23.0%, "다소 여유가 있다" 4.8%로 나타났다.

특히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으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소득에 비해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여유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가 대졸인 가구에서는 "풍족하고 여유있게 생활 할 수 있다" 9.5%, "다소 여유가 있다" 19.0%, "보통이다"라고 38.1%가 응답,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란 질문에 50.5%가 "아주관심있다"고 응답했으며 "약간 관심있다" 28.9%, "그다지 관심없다" 10.3%가 응답, 장애인 복지에 관해 배우자들 절대다수가 관심을 표명했다.

이러한 관심은 무학의 배우자와 25세미만의 배우자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



는 각각 30.8%와 25.7%, 17.4%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배우자들은 자신의 장애와 남편의 장애로 인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중 51.2%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30~34세이하의 응답에서는 “아주 관심있다” 51.9%, “약간 관심있다” 31.5%, “그다지 관심없다” 11.1%로 응답, 평균적인 관심사보다 좀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요즘 신문, TV, 라디오에서 장애인문제에 관한 기사가 있을 경우에 주의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느냐”란 질문에 배우자들은 76.1%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14.2%가 “주의하지 않는 편”,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배우자들의 장애인문제에 항상 고민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기대하며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57.1%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장애인 배우자의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25~29세이하의 배우자들을 장애인문제의 기사나 프로그램 등에 23.8%가 “주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37.1%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작은 비장애인 배우자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25세미만의 배우자들은 62.9%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14.3%가 “주의하지 않는 편” “가능하면 피한다”고 응답한 배우자가 무려 17.1%로 나타나 이들 배우자들은 남편의 장애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결혼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8.6%가 “0점”이라고 응답,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불만이 심각한 것을 보여 주기도 했다.

또 무학의 학력을 가진 배우자들은 “주의하는 편” 50.8%, “주의하지 않는 편” 24.6%, “가능하면 피하는 편” 21.5%로 나타나 장애인복지의 개념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지체장애를 가진 부인이 41.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40세이상의 배

우자중 41.6%가 지체장애인이라고 응답, 무학의 배우자와 비슷한 분포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77.9%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6.3%만이 “가능하면 피한다”고 응답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이 35.1%, “주위사람들의 시선” 19.8%, “편의시설 부족” 19.3%등으로 응답했다.

연령과 지역, 학력에 관계없이 부인들 10명중 2명은 주위사람들 시선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와의 편견의 벽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지 25세미만의 배우자들은 주위사람들의 시선(11.4%)보다 동행보호자가 없어서(17.1%) 외출할 경우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일반인과 차별없이 대한다” 9.1%, “동정적으로 대한다” 21.6%,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 31.1%, “강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 12.6%로 응답했다.

특히 농어촌배우자와 무학, 중졸, 고졸, 대졸배우자들은 30%가 넘게 강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들은 “일반인과 전혀 차별 없이 대한다”고 각각 21.7%, 14.3%로 높게 나타나 일반인과 잘 사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반해 나이가 가장 어린 25세이하의 배우자와 무학의 배우자는 각각 5.7%와 4.6%만이 차별없이 대한다고 응답해 이들은 일반인과 상대할때 느끼는 대인 공포증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사회 문화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란 질문에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편견·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44.9%)을 꼽았으며 공공시설 개조및 물리적 편의 시설 확충(15.0%)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법규개설(11.0%)등을 개선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이를 연령별로 가장 높은 욕구순으로 열거하면 편견·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은 40세이상 49.6%로 가장 높게 꼽았으며, 공공시설 개조 및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25.4%),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공간 신설및 확충



(12.7%) 등으로 25~29세 이하의 배우자가 가장 높게 꼽았다.

이는 사회인식개선보다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재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5세미만의 배우자들은 결혼상담 및 알선을 28.6%로 사회인식개선(20%)보다 훨씬 필요성을 강조, 최근의 가장 심각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35~39세미만의 배우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법규 개선(11.2%)이 시급하다고 지적, 남편의 사회생활이 다른 연령층보다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는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 신설 및 확충(13.0%)의 욕구가 높았으며 대졸 배우자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전문 상담기관 개설(14.3%)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느낌"의 질문에 대해 배우자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27.0%가 대답했으며 "사귀기가 힘들다(14.8%)", "자기 멋대로 한다(9.1%)", "독립심이 강하다(8.7%)", "예의가 바르다(8.4%)" 등으로 응답했다.

이를 지역별로 각 문항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내용을 살펴보면 자존심이 강하다(29.9%)는 농어촌에서 사귀기가 힘들다(18.9%), 중소도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에서는 독립심이 강하다(12.4%)와 예의가 바르다(4.3%)는 가장 낮게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예의가 바르고(14.3%) 독립심이 강하다(14.3%)는 긍정적인 평가를 25세미만의 배우자들이 응답했고, 30~34세이하의 배우자들은 자존심이 강하고(30.9%), 사귀기가 힘들다(19.8%)고 응답, 다소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고졸 배우자들도 자존심이 강하고(33.3%), 사귀기가 힘들며(19.1%), 자기 멋대로 한다(11.3%)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들은 예의가 바르고(17.4%), 순수하다(21.7%)고 비장애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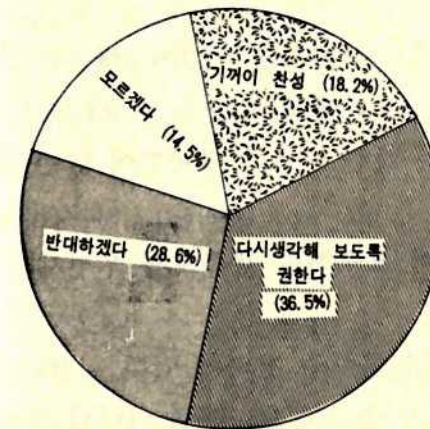
이같은 응답은 학력별 분포에서 장애여부를 살펴보면 부정적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고졸 배우자들은 41.7%가 지체장애인이며 긍정적인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졸 배우자들은 17.4%의 낮은 지체장애인인 것으로 나타

나 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자들이 비장애인의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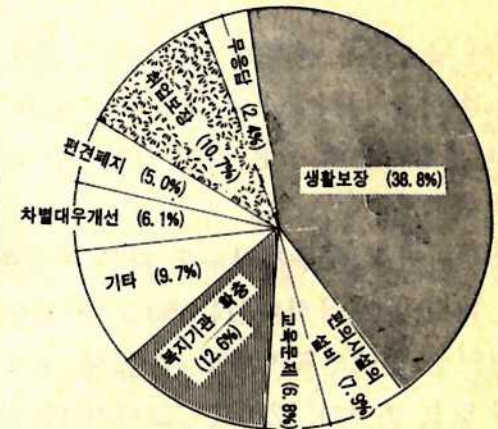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란 질문에 18.2%가 "기꺼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도록 권한다" 36.5%, "반대하겠다" 28.6%, "모르겠다" 14.5%로 나타나 배우자 대다수가 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기꺼이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배우자를 유형별로 알아보면 대졸이 38.1%, 전문대졸이 30.4%, 25세미만의 배우자가 25.7%, 25~29세이하의 배우자가 23.8%, 대도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23.9%로 나타나 고학력, 낮은 연령, 대도시 거주배우자들이 찬성의 뜻을 비쳤다.

<표 2-7> ◇자녀·친척이 장애인과 결혼여부



<표 2-8> ◇장애인을 위한 정책목구



"의학의 발달로 태아에서 장애여부를 인지하고 의사가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란 질문에 "장애가 있더라도 낳는다"는 11.1%, "중절한다" 66.4%, "모르겠다" 19.6%로 나타나 배우자가 장애인과 혹은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대부분 배우자들은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중절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배우자중 57.1%가 장애인이 아닌 25세~29세이하의 계층에서는 장애출산에 4.8%만이 낳겠다고 응답했으며 마찬가지로 지역별과 교육수준별 현황에



서도 배우자중 각각 48.2%와 41.7%로 장애를 입지 않은 배우자와 고졸 배우자가 각각 6.6%, 6.4%만이 장애아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 대부분 배우자는 중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는 18.2%가 장애가 있더라도 출산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5세미만의 배우자는 20.0%가 무학인 배우자는 21.5%가 장애가 있더라도 중절하지 않고 출산하겠다고 분명히 응답했다.

## 7. 배우자의 복지제도 욕구실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가장 먼저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38.8%가 “생활보장”을 꼽았으며 “장애인복지기관 확충(12.6%)”, “취업보장(10.7%)”, “편의시설 설비(7.9%)”, “교육문제 해결(6.8%)”, “차별대우 개선(6.1%)”, “사회적 편견 제거(5.0%)”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보장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무학은 50.8%, 대졸은 19.0%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졸인 배우자는 “사회적 편견제거”를 23.8%가 요구, 사회생활하는데 높은 턱이 없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내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5세미만의 배우자경우도 다른 연령층이 요구하는 생활보장 우선보다 교육문제 해결이 시급하다(14.3%)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 수준”에 대해서는 “아주 잘되어 있다”3.1%, “약간 되어 있는 편이다”22.0%, “그다지 되어있지 못하다”66.9%로 나타나 장애인 남편을 둔 배우자도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경제성장에 비해 극히 미약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 배우자들은 “정부의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매우 만족”이 5.8%, “다소 만족”이 7.1%, “그저 그렇다”22.5%, “다소 불만족”22.7%, “매우 불만족”33.6%로 나타나 12.9%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법률들이 현재 장애인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대단히 기여”2.9%, “다소 기여”17.5%, “그저 그렇다”27.0%, “특별히 기여한 것이 없다”23.9%, “전혀기여하는 바 없다”가 19.3%를

차지해 응답자 절반이상이 법률이 사실상 있으나마나 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제도나 복지정책등 복지수준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가구의 소득원중 남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8.8%에 불과하고 30%이상 이 무직상태에 있으며, 월수입이 30만원미만도 34.1%나 차지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고 취업등 대안이 없는 것에 근거된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장애인을 위한 제도및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어떤 분야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소득분야가 29.3%를 차지, 장애인 당사자의 가장 큰 욕구인 고용및 취업분야(21.0%)보다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지난 3월에 본협회에서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문항을 조사한 결과 고용및 취업분야에 56.2%가 응답, 취업을 강조했으나 배우자들은 소득분야가 법적·제도적 뒷바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우자들의 욕구는 또 사회문화분야(19.1%), 의료보장분야(14.2%), 교육분야(4.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와 40세이상 연령층, 무학인 배우자들은 소득분야를 각각 36.4%, 30.8%, 36.9%의 높은 비율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대졸배우자는 고용및 취업분야(33.3%), 30~34세 연령층과 25세미만의 연령층의 배우자들은 각각 고용및 취업분야(27.2%), 의료보장분야(22.9%)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문민정부가 탄생된 이후 우리나라가 참 민주주의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해야 할 사안’을 질문한 결과 배우자들은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함께 ‘장애인·여성·노인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철폐(16.0%)’와 ‘경제성장(10.4%)’, ‘물가억제(9.8%)’등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손대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반해 ‘국방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는 858명 전체응답자중 단1명만이 요구했다.

이를 주장한 배우자는 40세이상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우자로 나타났다.



# 제3장 조사결과 및 분석

## 1. 배우자의 장애 유무

귀하께서는 혹시 장애가 있습니까?	
1) 장애가 없다	(45.7%)
2) 지 체	(37.3%)
3) 시 각	(1.0%)
4) 청 각	(1.6%)
5) 언어장애	(2.4%)
6) 뇌성마비	(1.7%)
7) 정신지체	(2.3%)
8) 기 타	(4.7%)
9) 무 응 답	(3.1%)

### 전체분석

우리나라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45.7%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장애유형의 지체장애배우자는 37.3%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언어장애 (2.4%), 정신지체 (2.3%), 뇌성마비 (1.7%), 청각 (1.6%), 시각 (1.0%) 장애인 배우자는 극히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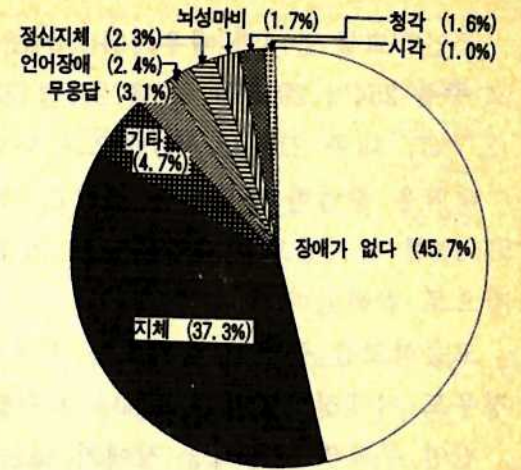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과 결혼, 같은 유형을 선호한 것으로 분석되며 장애가 없는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결혼이후 산업 재해나 교통사고등 각종 안전사고로 장애가 발생한 결과에 기인된 것이다.

또한 지체장애인 남성은 다른 장애 영역의 남성보다 장애가 없는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많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각종 장애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같은 장애유형끼리 결혼한 비율은 청각장애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시각 장애인 60%정도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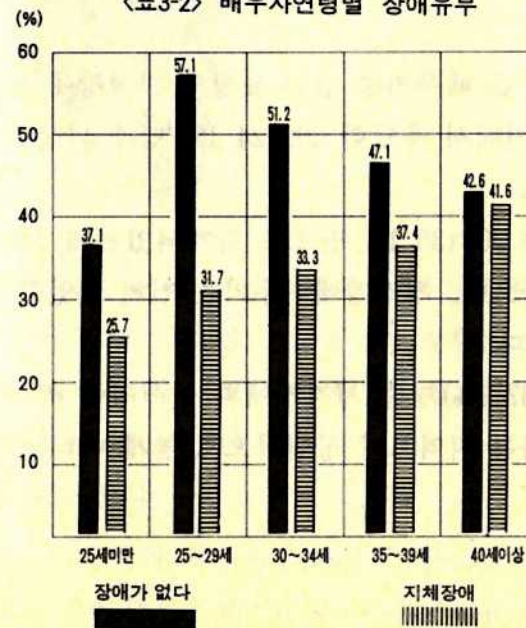
한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1985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체·청각·시각장애인등 결혼한 장애인 배우자가 장애인 경우는 65.5%, 장애가 없는 경우는 34.5%로 장애인 3명중 2명 정도는 배우자도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배우자의 장애유무



### 연령별 분석

<표3-2> 배우자연령별 장애유무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중 25~29세 이하의 부인은 57.1%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4세 이하의 부인도 51.2%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가장 젊은층인 25세미만의 배우자들의 경우 장애가 없는 부인은 37.1%로 가장 낮았으며 같은 유형의 지체장애 배우자도 25.7%로 나타난 반면 언어장애가 있는 배우자는 다른 연령층의 2배 가까운 5.7%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각종사고로 장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 학력별 분석

국민학교를 졸업한 배우자가 전체 응답자 858명중 279명 (32.5%)으로 가장 높고 중졸 254명 (29.6%), 고졸 204명 (23.8%), 무학 65명 (7.5%), 전문대졸 23명 (2.7%), 대졸 21명 (2.4%)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는 21명 (2.4%)에 불과 했으나 장애가 없는 배우자는 57.1%를 차지했고 지체장애인은 38.1%, 다른 장애영역의 배우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는 지체장애인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의 경우도 지체장애인이 41.5%나 차지했다.

반면 무학의 배우자중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은 33.8%로 전체의 45.7%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뇌성마비 (6.2%), 언어장애 (4.6%)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254명을 차지한 중졸 배우자중 뇌성마비장애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석

대도시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남편을 둔 배우자중 같은 유형의 지체장애 부인이 41.4%로 가장높게 나타났고, 대도시에서 응답한 209 (24.1%)명중 뇌성마비 장애인 부인은 1명인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도시에서 거주한 응답자는 301 (35.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45명 (48.2%)이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각장애배우자는 전혀 없었고 시각장애 배우자는 1명인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에 거주한 응답자 318 (37.1%)명중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배우자가 각각 11명씩 (3.5%)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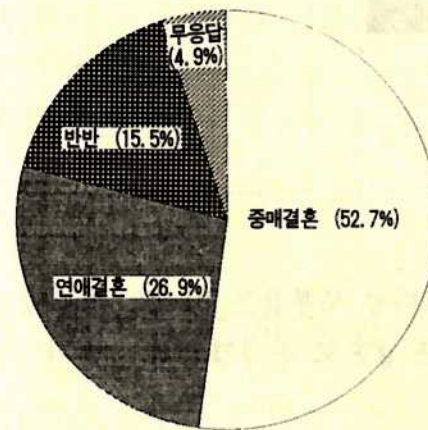
## 2. 결혼 방법

귀하의 결혼은 연애결혼입니까 아니면 중매 결혼입니까?	
1) 연애결혼 .....	(26.9%)
2) 중매결혼 .....	(52.7%)
3) 반 반 .....	(15.5%)
4) 무응답 .....	(4.9%)

### 전체분석

결혼유형에 대해서는 중매결혼이 52.7%를 차지했고 연애결혼은 26.9%, 연애와 중매가 반반인 경우도 15.5%로 나타나 중매결혼의 응답이 높았다.

<표3-3> 결혼의 유형



지난 1985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은 중매결혼이 50%이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연애결혼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연애결혼율이 83.8%에 이르고 있다.

또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결혼한 비율이 71.4%로 장애 유형별로 비교해 볼때 가장 높았다.

한편 최근 한국결혼복지연구원 조수동 원장의 '결혼상담 전문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남성의 경우 연애결혼은 52.1%, 중매 29.8%, 중매·연애 혼합이 16.9%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연애결혼이 42.9%, 중매 36.3%, 혼합이 20.2%로 각각 나타나 장애인의 결혼은 중매가 높고 일반인의 결혼은 연애결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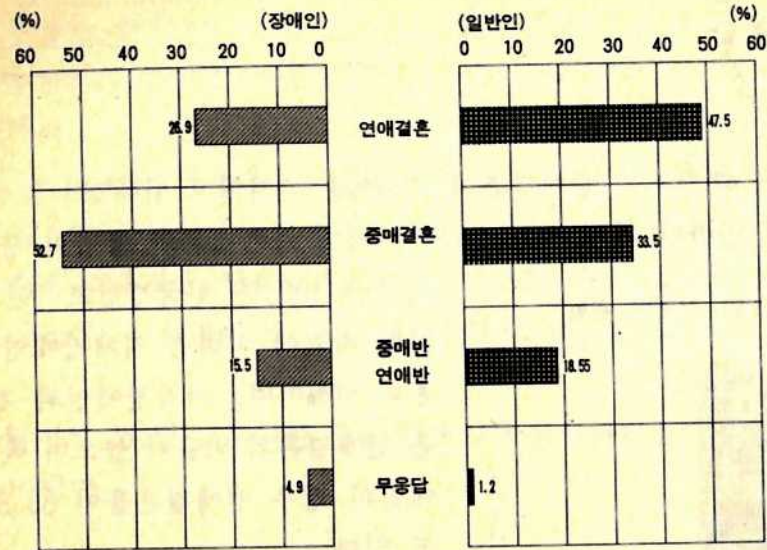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25세이하의 배우자 31.4%의 연애결혼과 22.9%의 연애반 중매반으로 결혼했으며 중매결혼은 22.9%를 나타내 젊은 부인들의 중매결혼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25세이상 30세미만의 배우자들의 연애결혼은 42.9%로 가장 높았으나 차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애결혼의 수치는 낮고 중매결혼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표3-4> 장애인과 일반인의 결혼유형 비교



특히, 40세이상의 배우자들중 연애결혼을 했다는 부부들은 19.8%, 중매결혼 64.7%, 반반이 12.8%를 나타내 장애인의 최근 결혼도 중매결혼에서 탈피, 연애결혼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분석

학력이 높은 배우자일수록 중매결혼이 현저히 떨어지고 연애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의 배우자일 경우 연애결혼은 18.5%, 중매결혼은 70.8%, 연애·중매가 반반인 경우가 6.2%였으나 대졸의 배우자는 연애결혼이 47.6%, 중매결혼이 28.6%, 반반이 19.0%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우자인 경우는 중매결혼(42.2%)과 연애결혼(41.7%)이 거의 엇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전문대

졸 배우자의 경우는 연애결혼이 47.8%, 중매결혼이 21.7%, 반반이 21.7%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석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연애결혼 24.5%, 중매결혼이 55.3%, 중소도시 연애결혼 34.2%, 중매44.2%, 대도시 연애결혼 21.5%, 중매결혼 65.1%, 기타 도시는, 연애결혼 13.3%, 중매33.3%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연애결혼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은 응답자 배우자중 48.2%가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이어서 농촌이나 대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중매나 중매와 연애의 혼합보다 연애할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다소 나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중 배우자가 지체장애인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41.4%를 차지했는데 결혼방법에 있어서 중매결혼(65.1%)이 연애결혼(21.5%)보다 훨씬 높고, 다른 지역보다 중매결혼의 비율이 높은 것은 같은 유형의 장애인끼리 주위에서 주선해 준 것으로 분석된다.

### 3. 주택의 소유 형태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 |        |         |
|--------|---------|
| 1) 자택  | (38.1%) |
| 2) 전세  | (23.5%) |
| 3) 월세  | (24.5%) |
| 4) 무허가 | (7.0%)  |
| 5) 기타  | (5.2%)  |
| 6) 무응답 | (1.6%)  |

#### 전체분석

지체장애인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은 현재 기거하고 있는 주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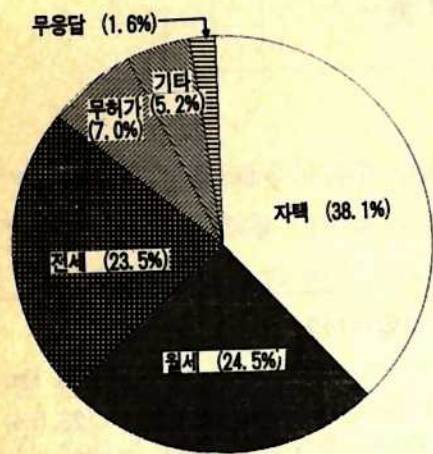


태에 대해 38.1%가 자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월세는 24.5%를 차지해 전세의 23.5%보다 높아 많은 장애인 가구들이 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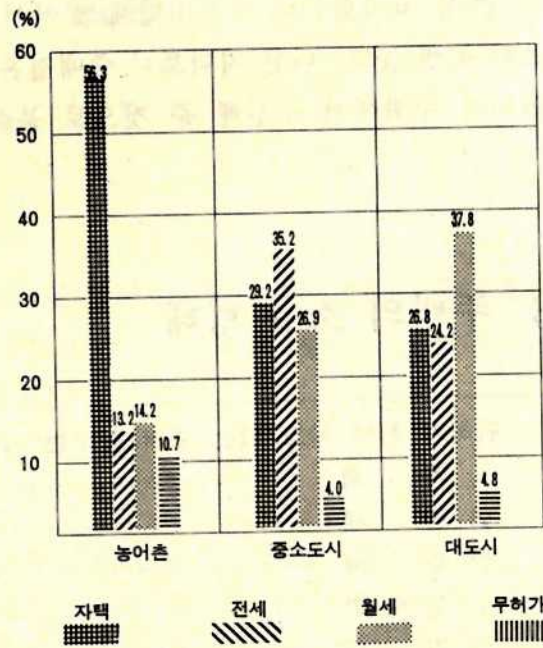
특히, 무허가가 7.0%에 달하고 부모나 형제등에 얹혀 살고 있는 장애인부부도 5.2%나 됐다.

장애인가구들이 대부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주택보유율이 38.1%는 의외성을 띠고 있으나 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부모가 주택을 마련해서 결혼을 시키거나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중소도시에서 주택보유율이 대체로 높아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소득수준은 비장애인 보다 훨씬 떨어지고 여유있는 삶을 영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5> 주택의 소유형태



<표3-6> 지역별 주택의 소유형태



특히 월세에서 살고 있는 가구들이 많은 것은 최근의 물가상승을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앉는 가구들이 늘어난 추세로 볼수 있다.

이는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부부중 37.8%가 월세로 나타나 대도시

일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주택보급율은 92년말 현재 건설부 통계에 의하면 가구수 1,093만3천가구수에 831만 주택수로 전국 보급률 76.0%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58만7천가구수에 170만5천 주택수로 65.9%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은 487만2천가구에 336만2천 주택수로 69.0%의 주택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이 주택보급율이 높아 전국 주택보급률이 76.0%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가구의 주택 보급률은 38.1%에 머물러 있다.

### 연령별 분석

주택을 가장 높게 보유한 배우자들의 연령층은 25세 미만으로 42.9%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40세 이상의 배우자들도 42.6%의 자택 보유율을 보였다.

반면 30~34세의 배우자들의 자택보유율은 32.1%로 전체 자택보유율 38.1%보다 6%나 낮게 나타났으며 또한 무허가도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6.5%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 주택 보유율의 가장 열악한 연령층으로 꼽혔다.

연령이 낮은 배우자 가구일수록 자택과 전세에 살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세, 월세, 무허가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0세 이상의 배우자 가구는 자택보유율이 42.6%로 집계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40세 이상의 연령의 가구들의 다양한 그리고 특징없는 주거형태를 나타낸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또 설문 응답자중 40세이상의 배우자들이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보다 소득과 주택등 삶의 모습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학력별 분석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학력과 뚜렷한 상관없는 분포를 보여 대졸의 경우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국졸의 배우자 가구가 41.9%로 나타났으며



전세는 전문대졸 배우자 가구가 39.1%를 차지했다.

또 무학의 배우자 가구의 경우 월세가 32.3%, 무허가 10.8%로 전체 응답자의 월세 24.5%, 무허가 7.0%보다 훨씬높게 나타나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역별 분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농·어촌이 높아 56.3%를 차지했으며 대도시는 26.8%에 불과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월세(37.8%)나 무허가(4.8%)가 농촌의 월세(14.2%)보다 월등히 높고 중소도시의 26.9%보다 높은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큰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는 자택이 29.2%, 전세35.2%, 월세26.9%, 무허가4.0%, 기타4.0%를 차지했다.

### 4. 주택입주 거부 유무

(자택 미보유자 분들에게) 귀하께서는 이사를 하기 위해 전·월세를 구입하려 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주를 꺼려하거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	(35.4%)
2) 없었다 .....	(48.0%)
3) 무응답 .....	(16.6%)

#### 전체분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월세등을 구입하려 할때 집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한 배우자는 35.4%를 차지했다.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48.0%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은 16.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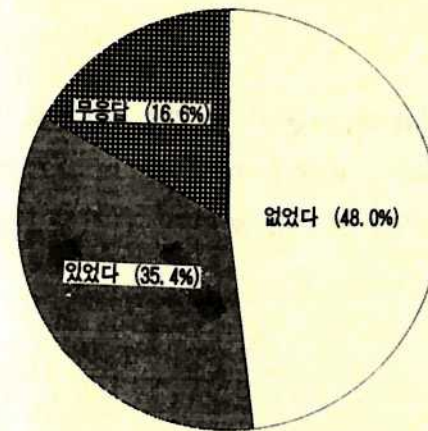
이처럼 입주거부사실이 높은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장애인을 이웃으로 생

각하는 것보다 곱끄러운 상대로 생각하는 일반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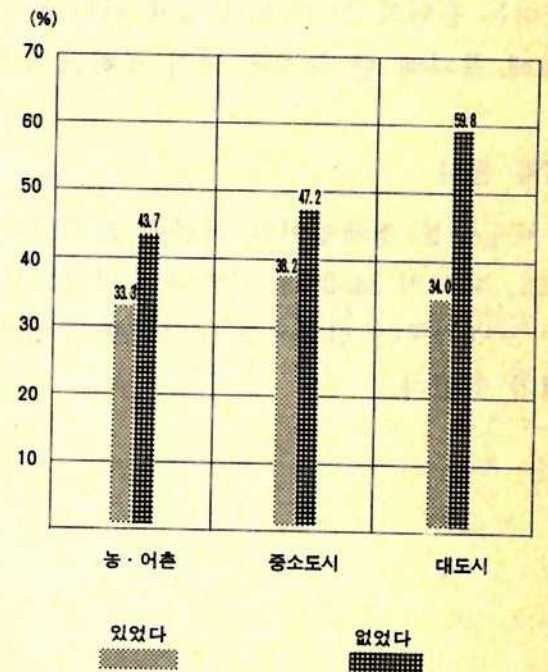
이처럼 장애인이 이사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이 지역에 들어선다는 소문만 나면 지역주민들이 연일 반대농성을 벌인것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수 있다.

이로인해 장애인 가구들은 가뜰이나 어려운 살림에 독립세대의 전세나 월세를 구입해야 할 형편이고, 또는 무허가를 지어 관계당국의 강제 철거와 또다시 무허가를 세우는 악순환속에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마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3-7> 주택 입주거부 유무



<표 3-8> 지역별 주택입주거부 유무



특히,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가구 38.2%가 입주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대도시는 59.8%가 거부당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 연령별 분석

주택입주를 거부당한 경우의 연령층은 30~34세(41.4%), 25세 미만(40.0%),



35~39세 (36.4%), 40세이상 (33.6%), 25~29세 (31.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주를 거부당한 사실이 없는 연령층은 25~29세 (50.8%), 40세이상 (50.1%), 35~39세 (49.7%), 25세미만 (42.9%), 30~34세 (42.6%) 순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분석

주택 입주를 거부당한 사례는 학력과 전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30~35%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를 이유로 입주거부사례가 없는 경우는 45~5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대졸 배우자의 경우만 특이하게 거부사례가 43.5%로 거부당하지 않았다는 응답의 39.1%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응답자 858명중 23명으로 2.7%에 불과해 큰 특징은 되지 못하고 있다.

### 지역별 분석

주택입주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거부당한 사례는 농촌이 33.3%, 중소도시 38.2%, 대도시 34.0%로 나타나 숫자상으로 나타난 비율은 어느지역이나 10가구중 3~4가구는 전월세를 구입할때 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꺼리거나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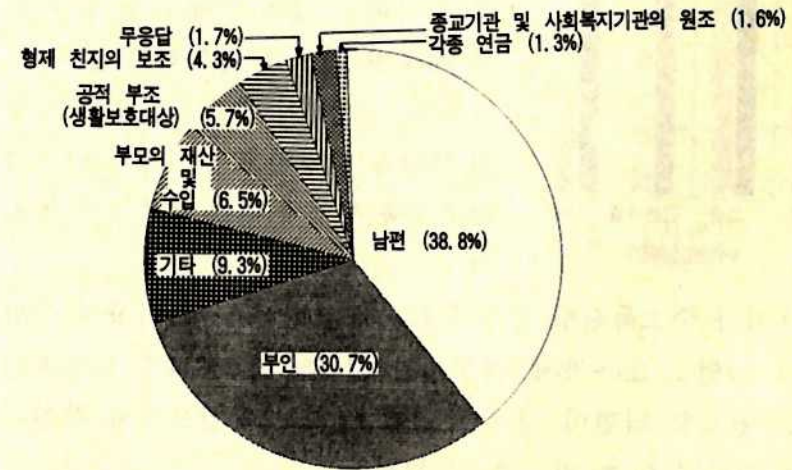
## 5. 가정의 주 소득원

귀하 가구의 주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1) 남편	.....	(38.8%)
2) 부인	.....	(30.7%)
3) 부모의 재산 및 수입	.....	(6.5%)
4) 형제 친지의 보조	.....	(4.3%)
5) 종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원조	.....	(1.6%)
6) 공적 보조(생활보호대상)	.....	(5.7%)
7) 각종 연금	.....	(1.3%)
8) 기타	.....	(9.3%)
9) 무응답	.....	(1.7%)

### 전체분석

〈표3-9〉 가정의 주 소득원



가구의 주 소득원은 남편이 38.8%를 차지한 반면 응답자인 배우자도 30.7%가 주 수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의 재산 및 수입이 6.5%, 생활보호대상자로 공적 부

조의 혜택을 받은 가구가 5.7%, 형제 친지의 보조가 4.3%, 종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원조 1.6%, 각종연금등이 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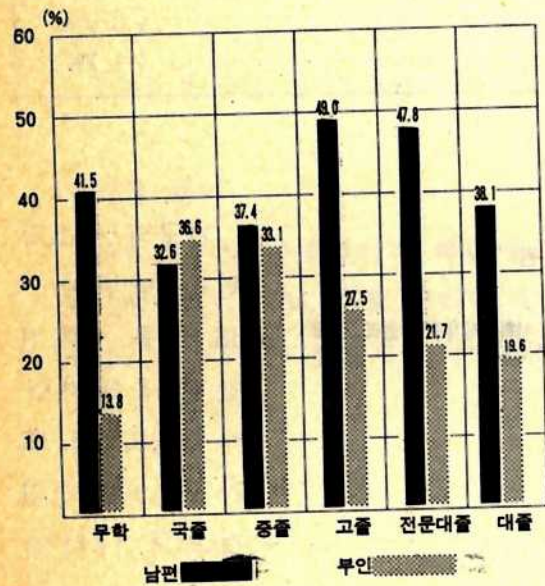
이처럼 지체장애인 남편들이 배우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 이후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등 각종안전사고등으로 장애발생률이 높아 배우자



들이 가정의 생계를 위해 사회생활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시 장애인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서에 따르면 장애인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 부모의 재산및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은 정신지체, 중복장애인, 언어장애인 순이며 종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원조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신지체 중복장애인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10〉 가정의 주소득원 남편과 부인의 관계



연령별 분석

남편이 가구의 주소득원인 경우 25~29세 배우자 가구가 52.4%로 가장 높았으며, 30~34세 배우자 가구는 41.4%, 25세미만 배우자 가구는 40.0%, 35~39세의 배우자는 38.0%, 40세이상의 배우자 가구는 36.8%를 차지하고 있어 대체로 25세 미만의 배우자 가구를 제외하고 젊은 연령층의 남편들이 주소득원으로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즉 25~29세의 배우자가 주소득원인 경우가 17.5%인 반면 40세 이상의 부인은 35.6%를 차지하고 있었고 35~39세 배우자는 31.6%, 30~34세 배우자는 25.9%가 각각 주소득원으로 남편이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함으로써 부인이 가정의 주소득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세 미만의 배우자는 부모의 재산및 수입이 17.1%가 가구의 주소득원이라고 응답, 아직 세대주로서 사회적, 가정적 책임을 부모가 담당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연령층일수록 부모의 재산및 수입에 의존도가 낮아 40세

이상의 경우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

전체 응답자의 23.8%이며 41.7%가 배우자 본인이 지체장애인 이라고 응답한 고졸의 경우 남편이 가구의 주소득원으로 49.0%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38.8%보다 무려 10.2%보다 앞섰고 무학의 배우자 남편도 41.5%가 가구의 주소득원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졸의 배우자 남편과 중졸의 배우자 남편은 각각 32.6%, 38.6%로 응답하고 배우자 본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국졸의 배우자는 36.6%, 중졸의 배우자는 33.1%로 응답, 국졸의 배우자 가구의 경우는 부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국졸의 배우자 경우 46.6%가 장애가 없으며 지체장애인은 34.8%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지역별 가구의 주소득원이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이 조금씩 많은 비율을 보였다.

즉, 남편의 주소득이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순으로 38.1%, 40.1%, 40.7%로 각각 나타났으며 부인의 주소득은 28.6%, 31.9%, 32.5%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기타지역에 살고 있다고 응답한 15명의 배우자는 형제 친지의 보조가 20.0%, 종교기관및 사회복지 기관의 원조가 13.3%를 차지하고 남편의 수입이 13.3%, 부인이 2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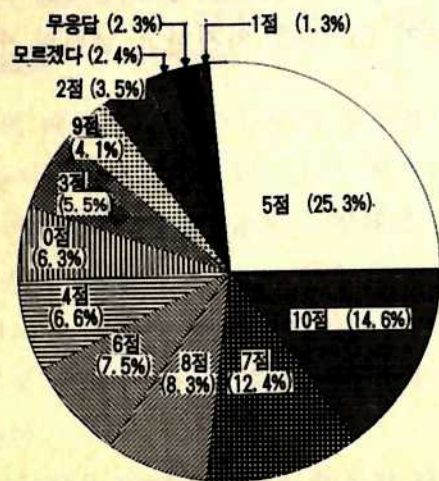
## 6. 결혼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이면 10점, 아주불만이면 0점, 그저 그렇다면은 5점으로 했을때 몇점정도 만족하십니까?

1) 0 점	( 6.3%)
2) 1 점	( 1.3%)
3) 2 점	( 3.5%)
4) 3 점	( 5.5%)
5) 4 점	( 6.6%)
6) 5 점	(25.3%)
7) 6 점	( 7.5%)
8) 7 점	(12.4%)
9) 8 점	( 8.3%)
10) 9 점	( 4.1%)
11) 10 점	(14.6%)
12) 모르겠다	( 2.4%)
13) 무응답	( 2.3%)

### 전체분석

<표3-11> 결혼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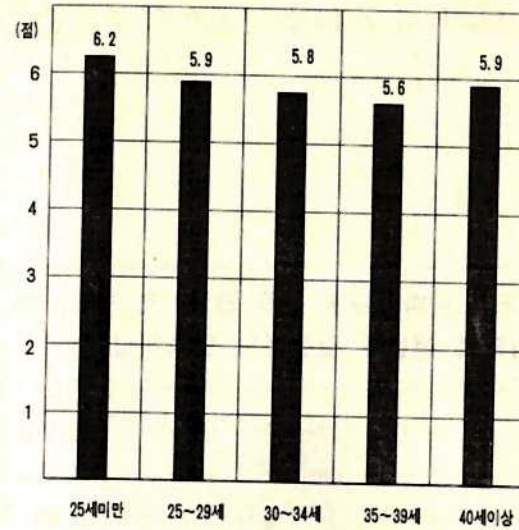


지체장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은 결혼의 만족도에 대해 평균 5.9점으로 평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흡족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장애인의 결혼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어렵게 결혼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지만 대체로 결혼생활이 불만인 배우자는 생활의 궁핍함이 결혼의 만족도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연령별 결혼의 만족도(10점만점)



당하는 40세 이상의 배우자들은 평균 5.9점으로 평가했다.

### 연령별 분석

결혼의 만족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엇비슷하게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10점 만점에 6.2점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9점이 8.6%, 7점은 20.0%, 10점도 11.4%나 차지했다.

또한 25~29세 배우자는 평균 5.9점으로 5점이 27.0%, 7점도 19.0%를 차지하였으며 30~34세는 평균 5.8점, 35~39세는 평균 5.6점, 응답자전체의 46.5%에

### 학력별 분석

결혼의 만족도의 경우 학력별 분포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의 점수와 정비례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무학의 배우자의 경우 결혼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0점 만점이 평균 4.3점으로 불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졸의 배우자의 경우 평균 5.4점, 중졸 5.6점, 고졸 6.4점, 전문대졸 6.0점, 대졸 7.4점으로 학력별로 만족도의 차이가 눈에 띄고 있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의 비중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중매결혼이 높았다는 앞의 설문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연애결혼을 한 배우자들의 경우 만족도가 높고 중매결혼의 만족도는 다소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도 볼수있다.



### 지역별 분석

결혼의 만족도는 대도시배우자가 10점만점에 6.3점으로 평가,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 배우자는 각각 5.8점과 5.7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도시의 배우자는 22.0%가 10점만점 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의 배우자는 12.6%, 농촌의 배우자는 11.6%가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 7. 가정생활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이면 10점, 아주 불만이면 0점, 그저 그렇다면은 5점으로 했을때 몇점정도 만족하십니까?

1) 0 점	( 7.6%)
2) 1 점	( 2.1%)
3) 2 점	( 3.1%)
4) 3 점	( 5.8%)
5) 4 점	( 7.6%)
6) 5 점	(29.4%)
7) 6 점	( 7.5%)
8) 7 점	(13.3%)
9) 8 점	( 6.4%)
10) 9 점	( 3.8%)
11) 10 점	( 9.6%)
12) 모르겠다	( 2.0%)
13) 무응답	( 1.9%)

### 전체분석

지체장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평균 10점 만점에 5.4점으로 평가,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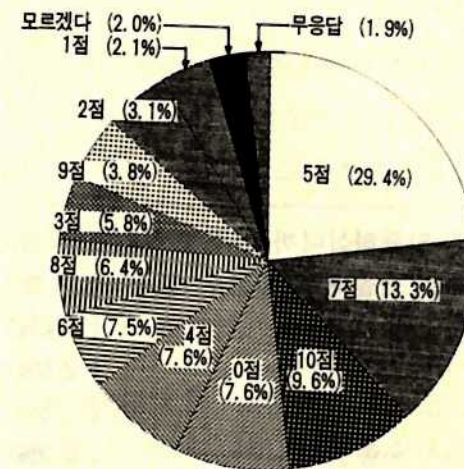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 만족도와 함께 생활의 궁핍함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내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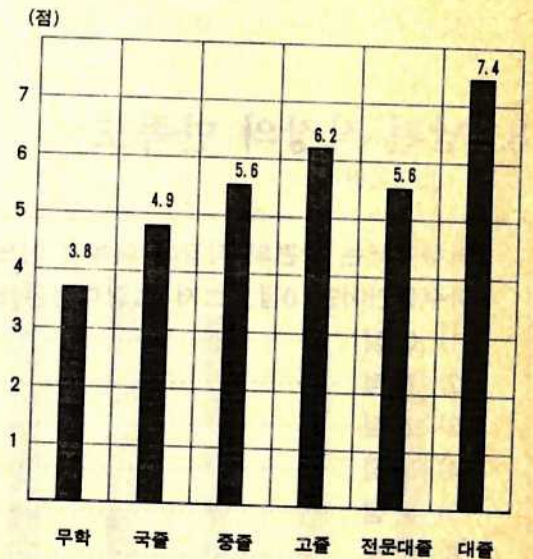
가정생활의 만족도와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엇비슷하게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취업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사회적응, 일반인의 편견등 사회의 벽을 높게 느끼고 있으나 가정과 결혼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10점 만점에 5.6점, 25~29세 5.8점, 30~34세 5.7점, 35세~39세 5.4점, 40세이상은 5.3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13> 가정생활의 만족도



<표 3-14> 학력별 가정생활의 만족도(10점만점)



### 학력별 분석

가정생활의 만족도의 경우도 결혼생활의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나 점수는 낮게 채점되었다.

즉, 무학의 배우자의 경우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3.8점으로 심각할 정도로 우려를 나타냈으며 특히 0점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30.8%나 차지하였다.



반면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의 경우 7.4점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0점, 1점, 3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2점, 4점도 4.8%에 불과했다.

### 지역별 분석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결혼생활의 만족도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마찬가지로 대도시일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 배우자는 10점 만점에 6.0점을 그리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들은 각각 5.6점, 5.2점으로 평가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들은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12.9%가 10점 만점으로 평가,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22.0%보다 9.1%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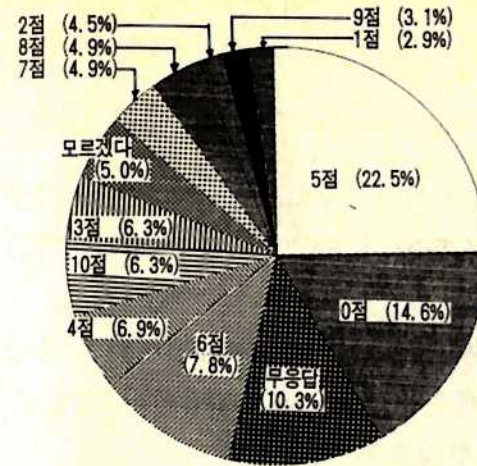
## 8. 남편 직장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이면 10점, 아주불만이면 0점, 그저 그렇다면은 5점으로 했을때 몇점정도 만족하십니까?

1) 0 점	(14.6%)
2) 1 점	( 2.9%)
3) 2 점	( 4.5%)
4) 3 점	( 6.3%)
5) 4 점	( 6.9%)
6) 5 점	(22.5%)
7) 6 점	( 7.8%)
8) 7 점	( 4.9%)
9) 8 점	( 4.9%)
10) 9 점	( 3.1%)
11) 10 점	( 6.3%)
12) 모르겠다	( 5.0%)
13) 무응답	(10.3%)

### 전체분석

<표 3-15> 남편 직장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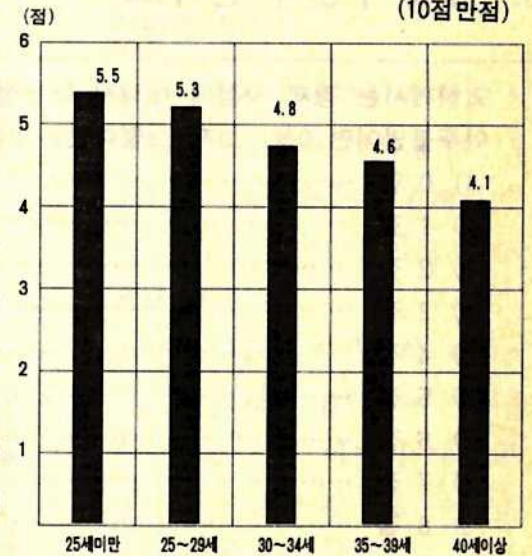
남편의 직장에 대한 배우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5점으로 평가, 만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불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직업이 무직이거나 또는 직업이 있다 해도 단순직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지만 남편의 장애를 인정하고 남편의 수입이 극히 적다라는 크게 불만이 없는 것으로 대답했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장애를 입은 남편이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배우자들은 흡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알맞는 직종을 개발·확대, 고용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3-16> 연령별 남편직장의 만족도 (10점만점)



### 연령별 분석

남편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젊을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약간씩 낮게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평균 10점 만점에 5.5 점, 25~29세이하 배우자는 5.3점, 30~34세 4.8점, 35~39세 4.6점, 40세이상 4.1점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분석

남편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대졸의 배우자 경우 10점 만점에 7.1점, 전문대졸 6.8점을 제외한 고졸배우자 이하 학력에서는 5점이하로 평가,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 지역별 분석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대도시 만족도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들은 10점 만점에 4.2점, 4.5점, 4.9점으로 각각 평가, 평균 5점을 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16.3%는 남편의 직장에 0점이라고 응답했고 중소도시 배우자는 13.6%, 농·어촌 배우자는 13.8%가 0점이라고 응답, 남편의 직장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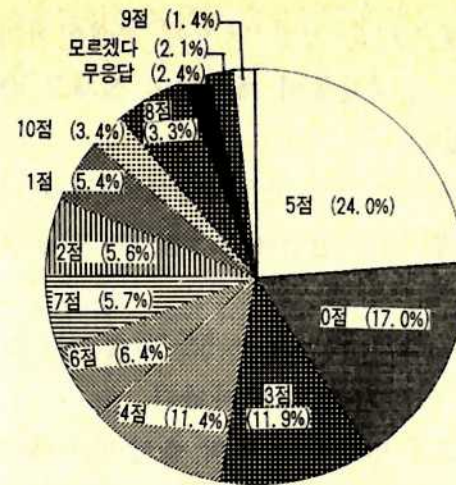
## 9. 경제사정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경제 사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이면 10점, 아주불만이면 0점, 그저 그렇다면은 5점으로 했을때 몇점정도 만족하십니까?

1) 0 점	( 5.4%)
2) 1 점	( 5.6%)
3) 2 점	(11.9%)
4) 3 점	(11.4%)
5) 4 점	(24.0%)
6) 5 점	( 6.4%)
7) 6 점	( 5.7%)
8) 7 점	( 3.3%)
9) 8 점	( 1.4%)
10) 9 점	( 3.4%)
11) 10 점	( 2.1%)
12) 모르겠다	( 2.4%)
13) 무응답	( 2.4%)

### 전체분석

〈표3-17〉 경제사정의 만족도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은 경제사정의 만족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3.9점으로 평가, 불만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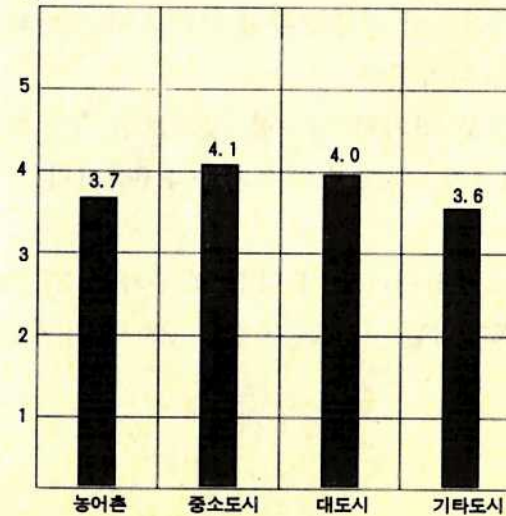
이는 남편이 혹은 남편과 배우자 본인들이 장애로 인해서 직업이 없거나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취업이 어렵고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과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애로 인해 의료행위가 빈번하고 사회생활의 제약으로 지출이 더욱 심해 가구전체의 수입원보다 지출액이

높아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 연령별 분석

〈표 3-18〉 지역별 경제사정의 만족도 (10점만점) (점)



경제생활의 만족도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정책결정의 우선 순위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경제생활의 만족도가 극히 나쁘거나 열악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점수에서 2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5.1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다고 응답했고, 25~29세 4.8점, 30~34세 4.1점, 35~39세 3.9



4.1점, 35~39세 3.9점, 40세이상 3.5점으로 평가했다.

### 학력별 분석

배우자들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남편이 장애인이거나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보다도 이로인한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실제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는 경제 사정의 만족도를 질문한 응답에서 그 어느 질문사항보다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하였으며 무학의 배우자의 경우 10점 만점에 2.4점이라고 응답,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경제사정이 0점이라고 응답한 무학의 배우자는 33.8%에 이르고 1점도 16.9%, 3점 10.8%, 4점 10.8%, 5점 7.7%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결혼, 가정생활, 남편의 직장등에 크게 만족했던 대학 졸업자의 배우자의 경우도 5.4점으로 낮게 평가하여 경제사정은 장애인 가정에 가장 큰 문제점이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 지역별 분석

이번 설문에서 결혼, 가정, 남편의 직장, 경제사정, 남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858명의 배우자들은 경제사정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낮게 평가,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이 경제생활의 어려움이 동반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정에 대한 만족도를 10점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살펴보면 농·어촌 배우자는 3.7점을, 중소도시 배우자는 4.1점, 대도시 배우자는 4.0점이라고 각각 평가했다.

특히, 대도시 배우자중 22.5%는 0점, 5점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27.8%, 농·어촌 배우자는 16.7%가 0점, 12.9%가 3점, 11.0%가 4점, 23.9%가 5점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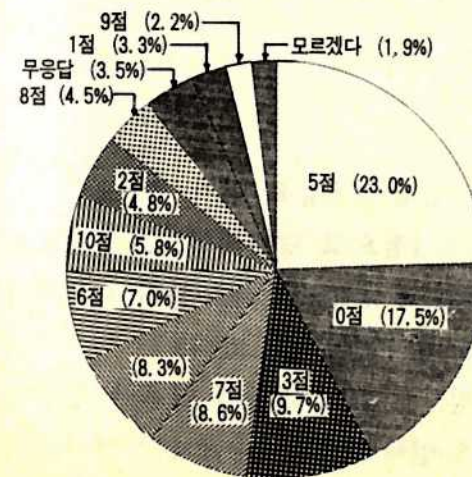
## 10. 남편건강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남편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 아주 만족이면 10 점, 아주불만이면 0점, 그저 그렇다면은 5점으로 했을때 몇점정도 만족하십니까?

1) 0 점	(17.5%)
2) 1 점	(3.3%)
3) 2 점	(4.8%)
4) 3 점	(8.3%)
5) 4 점	(9.7%)
6) 5 점	(23.0%)
7) 6 점	(7.0%)
8) 7 점	(8.6%)
9) 8 점	(4.5%)
10) 9 점	(2.2%)
11) 10 점	(5.8%)
12) 모르겠다	(1.9%)
13) 무응답	(3.5%)

### 전체분석

<표 3-19> 남편 건강의 만족도



남편의 건강에 대한 배우자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4.3점으로 평가, 남편의 건강에 대해 대체로 걱정하고 있으나 경제사정의 열악한 조건으로 남편의 건강에 대한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아쉬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해 중도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기적인 치료와 물리치료, 약 복용등이 지속되어야 하며 건강이 날로 쇠약해 짐에 따라 배우자와 가족들도 남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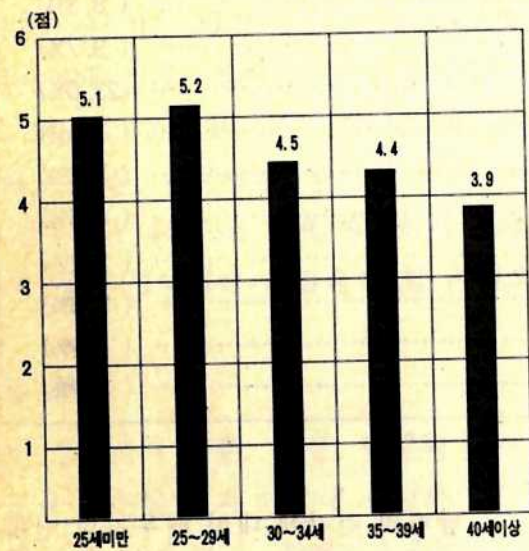


가정에 대한 건강을 매우 우려했다.

남편의 건강을 0점이라고 응답한 가정이 전체의 17.5%를 차지한 점을 분석하면 열악한 가정과 20대이후 중도장애인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남편 건강에 염려를 그다지 하지 않는 경우는 선천적 장애나 3살미만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 비장애인과 거의 똑같은 건강한 생활로 장애와 건강과는 별다른 함수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연령별 남편건강의 만족도(10점만점) 연령별 분석



나이가 많은 남편의 경우 건강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배우자의 경우 22.8%가 남편의 건강상태는 0점으로 평가했으며, 34~39세 배우자도 16.6%가 0점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연령순으로 집계해 보면 25세 미만의 경우 10점 만점에 5.1점, 25~29세 5.2점, 30~34세

4.5점, 35~39세 4.4점, 40세 이상의 배우자는 3.9점에 불과했다.

#### 학력별 분석

남편의 건강상태는 학력과 무관하게 10점 만점에 5점을 넘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 남편의 건강상태도 4.4점으로 평가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한 배우자의 경우 4.7점, 무학이 2.9점이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지체장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무학의 배우자 남편의 건강이 2.9점, 국졸의 배우자 남편의 건강이 3.3점으로 평가된것은 중증 또는 중복장애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한것으로 볼 수 있다.

엇비슷한 학력과 결혼을 했다면 학력이 낮은 것은 장애의 정도가 중중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지역별 분석

남편의 건강상태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나 거의 비슷하게 모두가 좋지않다고 응답했다.

즉, 농·어촌 배우자는 10점 만점에 4.5점, 중소도시 배우자와 대도시 배우자는 각각 4.2점, 4.3점으로 평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는것은 지역별 구분이 없는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 11. 현재 가장 근심 되는 일.

귀하께서는 현재 가장 근심 또는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입니까?

- |                     |         |
|---------------------|---------|
| 1) 경제적인 문제 .....    | (45.6%) |
| 2) 자녀교육문제 .....     | (19.1%) |
| 3) 자녀결혼문제 .....     | (8.2%)  |
| 4) 장애로 겪는 어려움 ..... | (20.0%) |
| 5) 기 타 .....        | (5.8%)  |
| 6) 무응답 .....        | (1.3%)  |

#### 전체 분석

지체장애인을 남편으로 둔 배우자들이 "현재 가장 조심 또는 걱정되는 일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응답자 전체의 45.6%가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답, 장애인 가구의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은 장애로 인해 생활보장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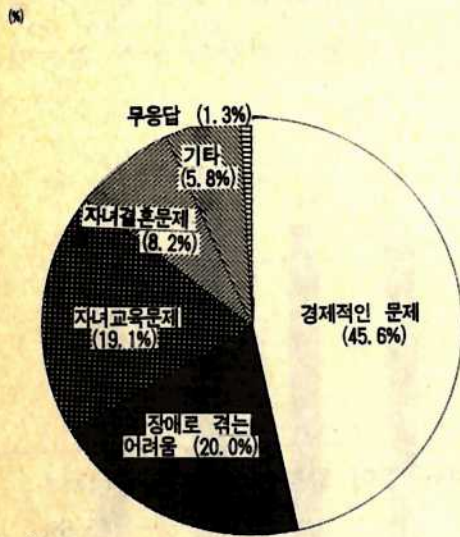
이와함께 장애로 겪는 어려움이 20.0%를 차지했으며 자녀교육 문제가 19.1%를 차지하여 자신의 장애와 남편의 장애가 사회생활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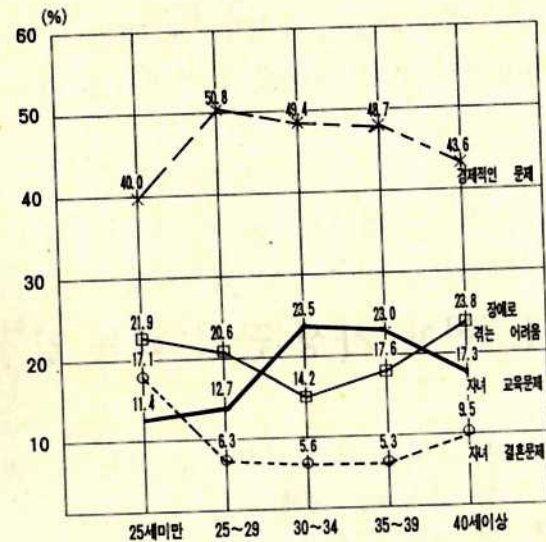
제약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자녀 교육이 부모의 장애로 상처 받을까 봐 크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나이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 결혼문제(8.2%)가 가장 걱정되는 일로 부모의 장애가 자녀의 결혼문제까지 파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현재 가장 근심되는 일



〈도표 3-22〉 연령별 가장 근심·걱정되는 일



연령별 분석

연령은 많고 적은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사안으로 꼽았으나 연령이 낮은 배우자일수록 경제적인 문제가 현재의 가장 걱정되는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연령이 다소 많을수록 장애로 겪는 어려움과 자녀교육문제, 자녀결혼문제가 부각되었다.

특히 30대 배우자들은 자녀의 교육문제를 23.0%이상으로 걱정한다고 응답,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모의 장애로 어린자녀들이 상처 받을까 크게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별 분석

대졸의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28.6%)보다도 장애로 겪는 어려움(28.6%)

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으며 고졸의 배우자들 50.0%는 경제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중졸의 배우자 경우 자녀교육문제(21.7%)를 크게 걱정하였으며 무학의 배우자들은 자녀결혼문제(15.4%)가 크게 고민된다고 심정을 토로하였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은 대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40~50%의 배우자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지역별 분석

현재 가장 걱정 되는 일에 대해 대부분 배우자들을 경제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들은 51.7%가 가장 어렵고 자녀교육문제와 장애로 겪는 어려움이 똑같이 17.2%로 나타났으며 자녀결혼 문제는 7.7%로 나타났다.

또 중소도시에는 경제적인 문제 43.9%, 자녀교육문제 22.6% 장애로 겪는 어려움 21.6%, 자녀결혼문제 5.0%로 나타났고 농·어촌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 44.3%, 자녀교육문제 17.9%, 장애로 겪는 어려움 20.1%, 자녀결혼문제 11.9%로 각각 응답했다.

한편, 수용시설이나 기타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응답한 배우자들은 40.0%가 장애로 겪는 어려움이 현재 가장 걱정, 근심되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후천적 장애라고 응답한 배우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25~29세가 79.4%, 30~34세 67.9%, 35~39세 67.9% 40세이상의 배우자는 75.4%, 25세미만은 40.0%로 각각 응답했다.

12. 남편의 장애 선천 또는 후천 여부

귀하 남편의 장애는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1) 선천적 .....	(21.3%)
2) 후천적 .....	(70.6%)
3) 모른다 .....	(4.3%)
4) 무응답 .....	(3.7%)